

반려동물 등록·중성화수술 아직도 안했나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인식조사 보니

‘광주에서는 하루 10마리꼴로 매년 3000마리가 넘는 반려견·반려묘가 버려졌고 이들 유기동물의 절반 가량이 자연사나 안락사를 당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두 배 이상 규모를 키웠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담긴 광주지역 유기동물 실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도 상당수 양육가구가 ‘동물 등록’을 꺼리는가 하면, 중성화 수술도 외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버려지는 동물이 하루 10마리에 이르는 등 반려인들의 의식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31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가 내놓은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71.4%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남은 81.8%로 중간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구소측은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광주 24.1%, 전남 26.2%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반려견을 키운다는 응답자 비율은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았다. 광주도 7번째를 차지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 등록률, 중성화수술 비율 등을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은 못 미치는 실정이다.

동물 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다 빠르게 주인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고 무책임한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의 경우 조사 대상 응답자 중 71.4%만 등록한 것으로 답해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중성화 수술의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질병 예방 효과, 동물 유기·악순환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반려동물 전문가들 설명이다.

광주 유기동물 매년 3000여마리 질병·유기 예방 위한 중성화 수술 광주 58%·전남 36%로 저조 진료비 지원 등 정책 펼치고 반려인들 의식수준 개선 필요

하지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남의 경우 응답자의 35.7%만 답해 중성화 수술 비율도 전국 17개 시도 가장 낮았고 광주도 58.3%만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답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동물보호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문턱이 높은 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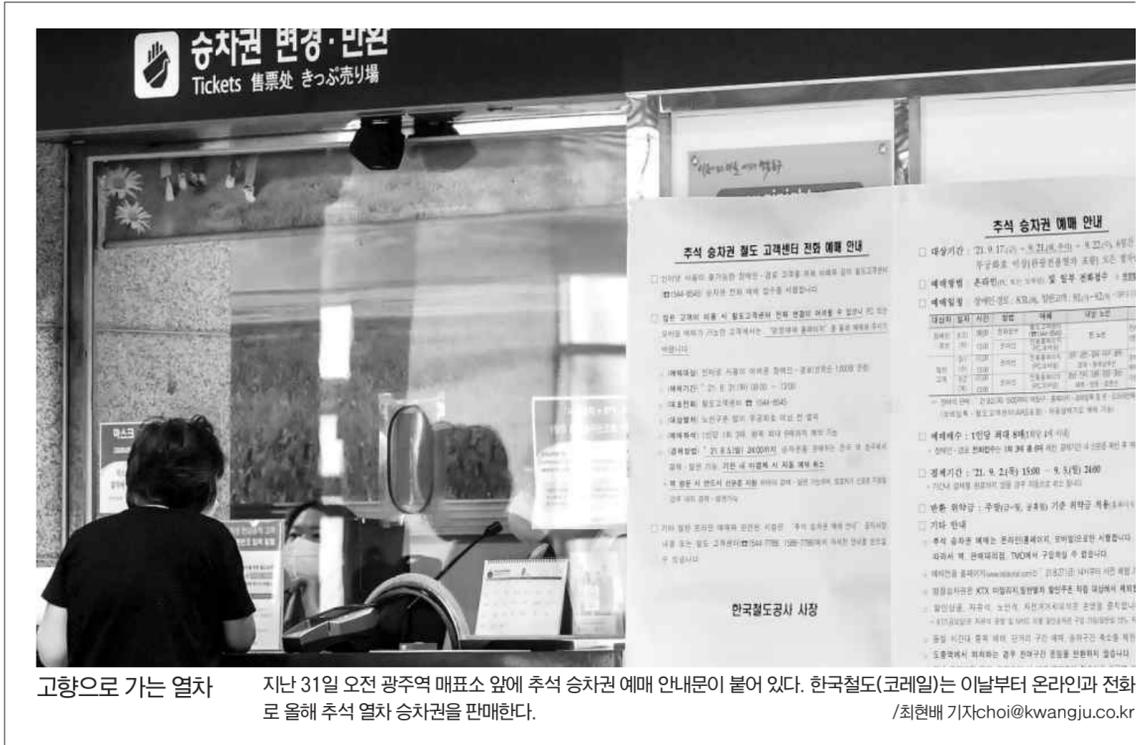
송정은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은 “중성화와 등록제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진행돼 반려인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용부담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중성화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만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해 반려인들을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내용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는 질문에서도 광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광주에서는 개(53.8%), 고양이(46.2%), 파충류(뱀·거북이, 15.4%) 순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웠고 전남에서는 개(64.7%), 고양이(29.4%), 파충류(11.8%), 기타(미어캣, 프레리독 등, 5.9%), 어류(5.9%) 등의 순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등의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향으로 가는 열차

지난 31일 오전 광주역 매표소 앞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이날부터 온라인과 전화로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아동학대 신고 급증

5년새 광주 50%·전남 58% ↑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세다. 지난 31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3026건(광주 1292건·전남 9026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213건(2016년)→254건(2017년)→235건(2018년)→271건(2019년)→319건(2020년)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49.86%가 늘었다.

전남에서도 275건(2016년)→260건(2017년)→314건(2018년)→451건(2019년)→434건(2020년) 등으로 5년새 57.8%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반면,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3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6만6935건)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또는 친인척, 보육교사, 교원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게서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 당국의 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원산지 표시 위반 36곳 적발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불량’ 정육업자 등이 사라질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농관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2723개 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36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이들 업소 중 축산물 원산지를 속인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개 업소 관계자를 입건, 조사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닭고기 각 3건 등이었다.

광주시 남구 A식자재마트는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심살 389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kg당 6500원으로 국내산 반값 수준이지만 해당 업체는 40% 비싼 가격에 팔면서도 할인가(kg당 9500원)라며 ‘생색’을 내고 팔았다.

여수의 B식당은 지난달 초까지 1년 동안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로 만든 두루치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1400만원 상당(862kg)을 팔았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 5월 개발한 돼지열병 항체 검증 키트(도구)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순천의 C식당은 국산보다 30~40% 저렴한 닭고기(브라질산)를 국내산이라며 온라인 앱으로 팔다 적발됐고 나주의 D축산업체는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조리한 양념불고기를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여파...플라스틱으로 뒤덮인 광주·전남

지난해 전남 하루 36t 배출

전년보다 73%나 급증

국회 토론회 열고 대안 모색

코로나 19 여파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면서 광주·전남지역 가정과 산업계 등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도 폭증하고 있다.

쓰레기장은 수거되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36 t으로 2018년 배출량(26.3 t)에 견줘 73%나 늘었다. 광주 상황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이날 토론회를 열고 탈(脫)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현 주소와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

는 주제로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은 “정부의 플라스틱 대책 문제 및 탈 플라스틱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공허한 플라스틱 정책을 꼬집었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2018.5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2020.12월) →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계획(21.3월) 등을 발표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해 폐플라스틱과

페비닐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4.6%, 11% 증가했다는 게 정 국장 지적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밝힌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이제는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닌,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류의 재질 단일화와 재질 표시 세분화 ▲혼합재질 용기류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강은미 의원은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법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5천만원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